

## 가장 좋은 피서지

오랜만에 먼 길을 운전했다. 12시간 걸리는 거리여서 하루를 자고 그 다음 날에 도착했다. 가는 길이 멀었지만 뜨거운 기온이 더욱 힘들게 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를 지나서 산호세 산을 넘자 108도가 갑자기 20분 만에 68도가 된 것이다. 믿겨지지 않았다. 아무리 시원한 곳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까지 시원할 줄은 몰랐다. 그렇게 사흘간 지나면서 바다를 만끽하게 되었다.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온도의 차이는 너무 컸고 사람들이 사는 분위기도 전혀 달랐다. 그곳에서는 아침저녁으로 긴팔을 입고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여행객들이 많았다. 더 있고 싶었지만 다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다시 운전을 하고 떠나 왔다.

떠나오면서 생각이 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온도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뜨겁다. 여기저기에서 산불의 소식이 들린다.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은 일들이 생긴다. 너무 더워서 피할 길이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답답하다. 고립된 것 같다. 방향을 알 수도 없다. 그런데 저 산 넘어만 가면 모든 일들이 달라지지 만 지금의 형편이 나를 이곳에 가두어둔다. 그런데 실은 상황이 나를 가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가두는 경우가 더 많다. 그 더위와 어려운 상황을 피할 길을 그곳에서 찾지 말고 저 언덕에서 찾으면 되는데 그 비밀을 알고자 하지도 않는다. 종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모든 일들이 해결된다. 저 언덕을 올라가고자 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고개를 넘어 살 수 있을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언덕으로 올라가야 하는 것이다.

그 언덕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다. 골고다 언덕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전부 지고 가셨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부활하신 생명의 하나님을 기대하며 언덕 밑으로 내려가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살다가 보면 아무리 용광로와 같은 세상이라고 해도 살만한 곳이 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지난주 어느 한 백인 목사님께서 올린 글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어려움에서 해방 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으며 그 글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고 싶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오직 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이다.

세상이 말하는 피서지를 찾지 말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자. 그 길은 살만한 길이고 갈만한 길이며 나에게 가장 알맞은 최선의 길이다.

하나님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시원한 길이다.